

OECD의 經濟 展望

〈'85·86年度 世界經濟의 方向〉

國 際 部

1. 概 況

- 작년 前半期에 현저한 景氣擴張 이후 美國의 需要 增加가 장기적으로 둔화되어 지속적인 인플레이 억제에 대한 展望을 높여줌.
- 日本經濟는 보다 低率의 인플레이션을 보이며 伸張勢를 지속함.
- 유럽의 實質成長率의 低率인플레이션과 예산 적자, 보다 높은 收益 및 投資 등 成長을 위한 基本的인 巨視 經濟의 조건의 개선과 관련되어 있음.
- 當分間 否定的인 요인도 있음. 各國의 失業率이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음.
- 유럽에서는 50年間 最高 수준에 도달.
- 成長勢를 저해하는 것으로서는
 - 美國 등의 높은 予算 적자
 - 지속적인 높은 利子率
 - 환율의 불안정성 增加
 - 높은 弗貨價 그 결과 美國經濟의 어떤 部門의 존립에 위협.
 - 漸增加는 貿易摩擦 및 差別 貿易慣行의 성

행.

— 多數의 開途國의 취약한 경제財政狀態임.

〈景氣展望의 주요 특징〉

OECD經濟는 작년 後半期와 거의 同率로 3~3.5% 成長中 向后 18個月間 OECD 成長 둔화 예상.

美國, 유럽의 成長은 日本의 成長을 下廻할 것으로 예상.

• 勞動市場

— 1984 中半以后 雇傭 및 勞動力, 원만한 伸張勢 지속.

— 向后 18個月間 失業率은 현재와 같이 8.25% 전망.

— 美國과 日本의 失業率은 큰 변동없을 것으로 예상.

— 유럽의 失業率은 1986年末까지 上昇 예상.

• 인플레이션

— 작년말까지 예상보다 약간 둔화되어 OECD 年平均率이 약 4.5%. 向后 18個月間 근소한 賃金調整과 生産性 향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둔화될 展望이다.

美國 : 3~3.5% 日本 : 2~2.5%

• 貿易 및 經常收支

— OPEC 需要弱화로 85, 86年 輸出이 OECD 成長에 주는 誘因은 근소할 전망.

— OECD 貿易量은 작년 9%에서 85年 5.5%로 둔화, 86年末까지 現수준 유지 예상.

— 美國의 經常收支赤字는 85年 200億弗. 86年 250億弗씩 상승하여 1,450億弗 도달 예상. (GNP의 3% 以上)

2. OECD의 현황 및 역할

가. OECD : 經濟協力開發機構 (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)

나. 設 립 : 1961年

다. 本 部 : 프랑스 파리

라. 加맹國 : 현재 美國 포함 24個國

마. 목 표 :

• 加盟國의 經濟成長 촉진

• 世界交易의 확대

• 開發途上國에 대한 지원

• 各 加盟國의 相互 協助的인 노력 촉구

바. 역할:

- OECD 諸國의 經濟動向과 展望에 관한 보고서(年2回)
- 世界經濟의 주요 懸案問題의 지적 및 이의 개선을 위한 政策 勸告事項 提示

3. OECD의 經濟成長과 不均衡

가. 實質 經濟成長率

表 1. 實質 經濟成長率

(前期比年率, %)

國別	年度	'84	'85	'86	'85		'86	
					上半期	下半期	上半期	下半期
美 國		6.8	3.25	2.75	3	3.25	2.75	2.5
日 本		5.8	5.25	4.5	5	5.25	4.25	4.0
西 獨		2.6	2.5	2.75	1.75	2.5	3.0	2.75
OECD 유 럽		2.4	2.25	2.25	2.25	2.5	2.25	2.25
TOTAL OECD		4.9	3.25	2.75	3	3.25	2.75	2.75

• OECD 諸國의 經濟成長率은 84年의 4.9%에서
-85年 3.25%로 둔화 展望

-86年 2.75%로 下降趨勢 지속

- 원인
 - 美國에서 需要成長의 감소
 - 美國의 財政 및 經常收支 적자
 - 개도국의 外債
 - 유럽의 高失業
 - 美國의 民間設備投資의 부진
 - 美國의 貿易收支의 악화 지속 등

• 「OECD 유럽」의 經濟成長率은 OECD의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더 낮은 成長率을 보이고 있음.

-85年度 下半期부터는 美國의 景氣가 주택 투자 및 수출의 증가로 유럽 諸國의 成長率도 國內需要의 호전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.

-'86 國內需要가 다시 둔화됨으로 2.25%의 成長에 그칠 展望.

• 美國의 經濟成長率

-'85 상반기 鈍化, 하반기 다소 회복 전망
- '86 貿易收支의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國內需要의 低調로 다시 2.75%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.

• 日本의 經濟成長率

- '85 中 對美輸出부진이 民間消費 및 住宅投資 등을 중심으로 한 國內需要 증가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되므로써 상대적으로 5.25%의 成長 유지 전망.

- '86 民間設備 投資를 중심으로 國內需要增加勢가 떨어짐에 따라 4.25% 成長에 머물 것으로 예상.

나. 實質 全體 國內 需要率

表 2. 實質 全體 國內 需要率

(前期比年率: %)

國別	年度	'84	'85	'86	'85		'86	
					上半期	下半期	上半期	下半期
美 國		8.7	3.75	3	3.5	3.5	3	2.75
日 本		4.0	4.5	3.75	4	4.75	3.75	3.25
西 獨		1.7	1.25	2	1	1.75	2	2.25
OECD 유 럽		1.7	1.75	2	1.75	2	2	2
TOTAL OECD		5.1	3	2.75	3	3	2.75	2.5

• OECD 諸國의 國內需要率은 84年의 5.1%에서

- '85 3%로 크게 줄고

- '86 2.75%로 더 줄것으로 예상

• OECD 유럽의 國內需要率은 84年의 1.7%에서

- '85 1.75% 다소 增加하고

- '86 2%로 增加한다.

- 美国, 日本의 84年度에 비하여 '85, '86 減少할 것으로 예상됨.
- 다. 物価上昇率

表 3. 物価上昇率

(前期比年率：%)

国別	年度	'84	'85	'86	'85		'86	
					上半期	下半期	上半期	下半期
美 国		3.2	3.25	3.5	3.25	3.5	3.25	3.25
日 本		2.1	2.25	2.5	2.25	2.25	2.5	2.25
西 独		2.6	2.25	2.25	2.5	2	2.5	2.5
{ 프 랑 스 } { 영 국 } { 이 탈 리 아 } { 캐 나 다 }		6.9	5.75	5.25	6	5.5	5.25	4.75
High Inflation Smaller Countries		37.0	34.5	30.5	34.75	32.5	31.25	27.75
다른 OECD 国家		6.9	5.75	5	6	5.5	4.75	4.5
TOTAL OECD		5.0	4.75	4.75	4.75	4.75	4.75	4.5

- OECD 전체의 物価上昇率(民間消費 GNP 디플레이터 기준)은 1984년의 5%에서
 - '85년 4.75%로 더욱 떨어질 전망
 - (이유) : 原油 및 기타 原資材 가격의 약세 지속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진정 외에 高失業 등으로 賃金上昇率도 원만한 상승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.
- 美国, 日本의 物価上昇率이 약간 높아질 예상
 - 美国 3.2%('84) → 3.25('85) → 3.5('86)
 - 日本 2.1%('84) → 2.25('85) → 2.5('86)
- 西独, 프랑스, 英国 등의 유럽 主要国은
 - 國際原資材價格의 하락과 이로 인한 輸入物価上昇 压力의 완화로 둔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.
 - 이에 따라 OECD 地域內的 国別인플레이션의 격차는 점차 좁혀질 展望임.
- 다른 OECD 国家의 物価上昇率은 84년 6.9%에서 '85년 5.75%, '86년 5%로 減少 예상라. 失業率

表 4. 失業率

單位：%

国別	年度	'84	'85	'86	'85		'86	
					上半期	下半期	上半期	下半期
美 国		7.5	7.25	7.25	7.25	7.25	7.25	7.25
日 本		2.7	2.5	2.5	2.5	2.5		2.5
西 独		8.3	8.25	8	8.25	8.25	8	7.75
OECD 유 럽		10.7	11	11.25	11	11	11.25	11.25
TOTAL OECD		8.4	8.25	8.5	8.25	8.5	8.5	8.5

- OECD 전체의 失業率은 1984년의 8.4%에서
 - '85년 8.25%로 소폭 떨어지고 '86년에는 經濟成長의 둔화로 다시 8.5%로 상승 예상
- 美国은 '84년의 7.5%의 失業率이 '85, '86년에 7.25%로 소폭 하락되는 이유는 生産性이 낮은 서비스部門으로의 就業移轉이 가능했기 때문임.
- 日本의 失業率은 新規勞動力의 增加勢의 둔화로 1984년의 2.7%에서 '85, '86년 2.5%로 머물 것으로 예상.
- OECD 유럽의 失業率은 '84년의 10.7%에서
 - '85년 11%로 小幅 上昇
 - '86년 11.25%로 더 上昇 予想
 - 이유 :
 - 구조적 문제의 미해결 (상대적 高賃金, 産業構造 調整 지연)

- 生産性 増大에 따른 雇傭機會의 축소
- 新規勞動力 流入이 企業의 雇傭者數를 앞지르고 있음.
- 西独, 英國 등은 '86년까지 雇傭 사정이 개

- 선될 것으로 예상됨.
- 프랑스, 벨기에 등은 계속 악화 예상.
- 國別 失業率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전망 다. 經常收支

表 5. 經濟收支

單位：10億弗

國別	年度	'84	'85	'86	'85		'86	
					上半期	下半期	上半期	下半期
美 國		-101.6	-120	-145	-112	-127	-140	-151
日 本		35.0	39	48	37	42	46	50
西 独		6.2	12	18	10	14	18	19
OECD 유럽		9.3	16	29	10	22	27	31
TOTAL OECD		- 65.4	- 72	- 74	- 73	- 71	-74	- 74

- OECD 諸國의 經常收支赤字는 '84年 654億弗에서 '85年 720億弗, '86年 740億弗로 확대전망.
- 美國의 經常收支 赤字는 '84年 1,016億弗에서 '85年 1,200億弗, '86年 1,450億弗로 확대 예상.
- 日本, 西独, OECD 유럽의 經常收支는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黑字幅이 계속 增加 될 것으로 전망.

4. 政策方向(OECD)

- 가. 貿易政策：非關稅 장벽이 산업 活動의 핵심 에 미치고 있으며 최대 職業 創出이 예상되는 서비스 部門에도 만연됨.
- 나. 産業育成：國內支援 조치가 확산 강화
- 다. 競爭政策：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통일된 西歐市場 創出 노력의 전개
- 라. 勞動市場 정책：職業 상실을 막아주도록 의 도된 規程이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일자리 創出을 억제함.
高率의 최저 賃金이 雇傭機會를 제한시킴.
- 마. 財政政策：大企業 위주의 資本流通 構造는 動的인 新規會社에 대한 資金을 高갈시킴.
行政的인 왜곡을 줄여서 與信을 적절히 배분 할 분야가 많음.

5. 美國이 취할 정책에 대한 제안

- (1) 構造的 予算 赤字를 낮출 것

- (2) 通貨 팽창 억제
- (3) 利率의 저하 유도
일본의 EPA모델, Federal Reverse System 의 多國 모델, OECD의 Inter-link 모델은 유사 한 결론에 도달
- (4) 短, 中期的으로 財政緊縮을 통한 美豫算 赤字의 지속적인 減縮은 美GNP를 減少시킨다.
- (5) 당분간 이러한 감축은 OECD 價格水準을 내 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.
- (6) 美달러貨의 증가가 일정할 때 의도적인 米 國의 低利率 정책은 美달러貨의 가치를 하락 시킨다.
- (7) 그렇게 됨으로써 낮은 달러 가치에 따른 美 國의 國際競爭力 증가에 기인한 輸出의 감소 와 經濟活動때문에 OECD의 經濟活動은 위 축된다.
- (8) 美國外에서의 利率率 하락은 通貨增加와 財 政政策이 불변일 때 (4)에서 언급한 효과와 美國外의 經濟活動의 효과를 상쇄하기는 불 충분하다.
- (9) 美國의 現 財政赤字는 개선될 것이나 몇년 동안 많은 赤字를 지속할 것이다.
과거의 예로 보아 어느 國家도 外國의 영향 을 안받을 수 없으며 또한 自國의 政策의 영향 이 다른 國家에 미치는 結果를 무시할 수 없다.
OECD 各료들이 4月회합에서 동의한 대로 政 策의 國際的인 影響을 감안할 때 相互協力은 國際 收支와 동시에 國內生産性도 향상시킬 것이다.